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다가오는 인구조사에서 모든 뉴욕 주민을 집계할 수 있도록 인구조사
홍보 주간 시작**

*이주자 지원국은 인구조사 핫라인 폰 뱅크 이벤트를 8월 5일 및 6일에 실시하여
인구조사에 대한 정보 및 질의응답 제공*

*주정부 기관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협력 계속*

*참여 독려를 위해 7월 30일 목요일을 '친구와 가족의 날', 8월 10일을 '10일 10분의 날'로
지정*

인구조사는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인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구조사 홍보 주간(Census Push Week)을 시작하여 모든 뉴욕 주민에게 2020년 10월 31일 기한까지 2020 미국 인구조사(2020 U.S. Census)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다가오는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조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우리 뉴욕주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의 연방 자금 및 권리 대표가 인구조사 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뉴욕 주민이 인구조사에 포함되고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구조사 참가자의 이민 및 시민권 상태와 관련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기밀로 안전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구조사 실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이 바로 인구조사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뉴욕주는 계속 연방정부에 대규모 자금 지원 및 원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인구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뉴욕주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구조사 홍보 주간(Census Push Week)의 일환으로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은 인구조사 핫라인 폰 뱅크 이벤트(Census Hotline Phone Bank

Event)를 8월 5일 및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하여 인구조사에 대한 정보 및 질의응답 제공합니다. 핫라인 폰 뱅크 이벤트는 주로 스페인어로 실시되지만 모든 발신자를 위해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ONA는 엘 디아리오(EI Diario) 및 텔레문도(Telemundo)와 협력하여 폰 뱅크를 홍보하고 라틴계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뉴욕 주민의 인구조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은 역 및 차량을 포함하여 시스템 내 5,434개 이상의 디지털 스크린에 인구조사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DOS)는 인구조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빈곤 퇴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행동 기관(Community Action Agencies)의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9개 직업에 종사하는 8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과 교류하는 DOS의 라이선스 서비스부(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는 고객 서비스 전화를 이용해 인구조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은행, 은행 부족 지역의 은행, 수표 캐셔 및 송금 책임자, 기관이 허가한 기타 기관간의 사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및 구성원, 웰컴센터 및 기타 ESD 시설에 인구조사를 홍보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또한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인구 조사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 전역에 걸쳐 2020 인구조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합체인 [뉴욕 카운트 2020\(New York Counts 2020\)](#)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가 인구조사 참여 독려를 위해 더 좋은 뉴욕 연합(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 ABNY)과 협력하여 7월 30일 목요일 '친구와 가족의 날(Friends and Family Day)' 및 8월 10일에 '10일 10분의 날(Take 10 Minutes at 10)'을 홍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날'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뉴욕 주민에 10명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 인구조사 참여를 권고합니다. '10일 10분의 날'은 기업, 조합, 단체로 하여금 직원에게 8월 10일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하도록 합니다.

MTA의 Patrick J. Foye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는 역, 지하철 및 통근 열차 차량, 버스에서 수천 개의 디지털 화면을 사용하여 뉴욕 주민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송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특히 시기적절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에 직면한 지금, 워싱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를 잃는 것은 최악의 일입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인구조사를 완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통계에 포함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하고 쉽습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뉴욕은 시민권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뉴욕은 의료, 교육 및 응급 서비스와 같은 중요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nda A. Lacewell의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2020년 인구조사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의료, 비상 계획, 경제 발전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이러한 자원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하게 기밀로 취급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시민권 상태에 관계없이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입니다."

ESD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에 모든 뉴욕 주민이 참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학교, 병원, 도로, 교량, 기타 중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인구조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조사 완료 위원회(Complete Count Commission)를 출범하여 작년 주 전역에서 12번의 공공 청문회 및 라운드테이블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식을 제고하며 집계가 어려운 지역사회까지 닿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지침으로 삼아, 주정부는 집계가 어려운 지역사회에 직접 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캠페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주정부 기관의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1월, 주지사는 공식적으로 인구조사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과 관리 공무원들과 만나 주정부와 협력하고 집계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뉴욕주 최초로 인구조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몇 주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뉴욕주를 강타하여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위험해졌으며 따라서 주정부 기관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주정부 수익의 약 7 퍼센트 증가 예상이 실제로 14 퍼센트 감소로 나타난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이러한 상실분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재정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은 전국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7월에서 10월 말로 인구조사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